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내달 3일 개막

장항준 집행위원장 “좋은 영화·좋은 음악·사람들 기다려”  
봉준호·박찬욱 참석에 홍보대사 안재홍… 역대 최대 189편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가 다음 달 3일 개막한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월 3~8일 열리는 영화제 상영작과 공연 등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 감독인 장항준 집행위원장은 “올해 영화제에는 역대 최다인 189편의 작품이 상영되고, 공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좋은 영화와 좋은 음악, 좋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영화제 개막식에는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이 나란히 자리하고, 관객 프로그램에는 봉준호 감독과 정서경 작가, 김은희 작가, 권일웅 프로파일러, 배우 전미도, 손석희 앵커 등이 참여한다.

장 집행위원장은 “작품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배울 점이 참 많고 동료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라며 “조심스럽게 (초청)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장 집행위원장과 아내인 김은희 작가는 김초희 감독이 연출한 올해

영화제 트레일러 영상에도 직접 출연했다.

개막작은 콩고 출신 감독이자 뮤지션인 라피키 파리알라의 ‘콩고 보이’다.

올해 간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초청작으로, 전쟁과 이주라는 환경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소년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올해 영화제는 기존 경쟁부문을 국제경쟁 부문과 국제음악경쟁 부문으로 나누고, 축제 장소를 확대하는 등 여러 변화를 꾀한다

국제음악경쟁 부문에선 음악이나 음악가를 중심 소개하는 영화를 소개하고, 국제경쟁 부문에선 장르나 소재의 제한 없이 전 세계 영화인의 신작을 소개한다.

또 지난해 리모델링해 재개관한 메인 상영관 제천문화극장(구 메가박스)은 기존 4개관에서 7개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개막식과 대표 공연 프로그램인

‘원 썸머 나잇 위드 케이팝 시즌 2’는 기존의 제천비행장이 아닌 제천 예술의전당 앞 여름 광장에서 진행된다. 영화 상영과 공연, 토크 프로그램, 야외 이벤트 장소를 모두 도심 중심부에 모아 도시 전체를 하나의 축제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음악영화와 장르영화, 컬트영화 등을 ‘밤샘 상영’하는 심야 특별 프로그램 ‘녹턴 스페셜’도 신설됐다. 영화제 공식 홍보대사 ‘집페이스’로는 배우 안재홍이 위촉됐다.

연합뉴스



영화 ‘가능한 사랑’ 속 장면.

넷플릭스 제공

## 이창동 감독 ‘가능한 사랑’ 뉴욕영화제 초청 메인 슬레이트 부문 국내 영화 중 네 번째 초청

이창동 감독의 신작 영화 ‘가능한 사랑’이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제64회 뉴욕영화제의 메인 슬레이트 부문에 초청됐다고 6일 넷플릭스가 밝혔다.

뉴욕영화제는 미국의 권위 있는 영화제 중 하나로, 메인 슬레이트 부문은 세계적인 거장과 주목받는 신예의 대담하고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섹션이다. 국내 영화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2019),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2022)과 ‘여름수업’ (2025) 등이 소개됐다.

이 감독은 ‘밀양’ (2007), ‘시’ (2010), ‘버닝’ (2018)에 이어 네 번째로 이 부문 초청장을 받았다. 올해 영화제는 9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열린다.

뉴욕영화제 예술감독 데니스 림은 “‘가능한 사랑’은 이창동의 필모그래피 중 가장 풍부하고 넓은

지평을 열어 보이는 작품으로, 노동·계급·자본·예술·욕망·가족 등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의 모든 힘을 아우른다”며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동시에, 이를 뛰어넘는 울림을 안겨준다”고 소개했다.

‘가능한 사랑’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만난 두 부부가 숨은 욕망을 마주하는 이야기다. 설경구와 전도연이 해고노동자 호석과 그 아내 미옥을, 조여정과 조인성이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와 남편 상우를 연기한다.

이 감독이 ‘버닝’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으로 넷플릭스에서 제작됐다.

영화는 다음 달 열리는 제83회 베네치아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최초로 상영한다. 국내에서는 9월 23일 개봉하고 넷플릭스에서 11월 6일 공개된다.

연합뉴스

##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에 배우 양자영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로 말레이시아 배우 양쯔충(양자영)이 선정됐다.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6일 “양쯔충은 홍콩 영화의 부흥기 속에서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선구자”라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양쯔충은 1985년 영화 ‘예스마담: 황가사저’로 데뷔해 ‘007 네버 다이’ (1997), ‘와호장룡’ (2000) 등에 출연해 국제적인 인지도를 쌓았다.

이후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2018), ‘위키드’ (2024) 등에 출연했고, 2022년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로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등 북미 주요 영화 시상식의 여우주연상을 휩쓸었다. 부산국제영화제와도 인연이 깊다.

양쯔충은 영화 ‘북극’ (2007), ‘검우강호’ (2010), ‘더 레이디’ (2011), ‘염문 외전’ (2018),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2022) 등 주요 대표작들로 꾸준히 영화제에서 관객들을 만났다.

직접 부산을 찾은 건 ‘더 레이

디’ (2011)로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이후 15년 만이다.

올해는 양쯔충이 직접 선정한 세 편의 대표작 ‘검우강호’와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산디와라’와 신작 ‘우리 할머니는 큐브왕’ 등 총 4편을 상영하는 특별기획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6~15일 부산 영화의전당을 비롯한 부산시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은 10월 6일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수여된다.

연합뉴스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 배우 양쯔충. 부산국제영화제 제공

## ‘나는 솔로’ 넷플릭스 타고 글로벌 진출

영어·스페인어 등 자막 지원  
이달부터 국내 OTT 단독 공개

SBS 플러스와 ENA에서 방영 중인 예능 ‘나는 솔로’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으로 진출한다.

넷플릭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나는 솔로’와 스페인판(파생작) 프로

그램인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이하 나솔사계)를 글로벌 스트리밍한다고 6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기존에는 국내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다시 보기 서비스 등을 공개해 왔으나, 하반기부터 전 세계로 시청층을 넓힌다. 글로벌 론칭에 맞춰 영어·스페인어 등 자막을 제공하고 지원 언어를 계속 늘려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주↔베트남전세기 3박5일**  
10. 3(토,방출발) - 10. 7(수,아침도착)

**하노이, 하롱베이 1,290,000**  
**하노이, 사파 1,390,000**

**제주↔일본전세기 3일**

**특별한 가을 여행**

**오кина와 10.16(금)-18(일)**  
**구마모토 10.31(토)-11.2(월)**  
**1,099,000**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제주↔항주(룽에어)**  
매주 목요일 | 10명 이상 출발 | 3박4일

**노팁! 노옵션! 노쇼핑!**

**황산 1,199,000**  
**오진 1,199,000**  
**상해 1,099,000**

**한글날연휴 항주, 황산 4일**  
10.8(목) - 11(월) **1,249,000**

**제주직항 없을 때는 청주경유가 최고!**

**제주↔청주↔장가계**

**9월 특가 (노옵션)**  
**3박4일(토) 4박5일(화)**  
**849,000**

**제주↔청주↔베트남**

**3박5일 (노팁,노옵션)**  
**다낭&호이안 750,000~**  
**나트랑&달랏**  
제주↔청주 국내선 별도



**니하오여행사 064)722-6638** 제주시 진남로 32

포함 사항: 왕복항공료(공항세, TAX, 유류할증료 포함), 호텔(2인1실), 차량료, 입장료, 식사, 가이드, 여행자보험 등  
불포함 사항: 부가가치세(10%), 봉사료, 선택관광 | **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